

##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 월 행사 안내

9월 1일(주일)  
전교인 거리전도 시작

9월 5일(목)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회복과정 수료식

9월 7일(토)  
청년 알파 초대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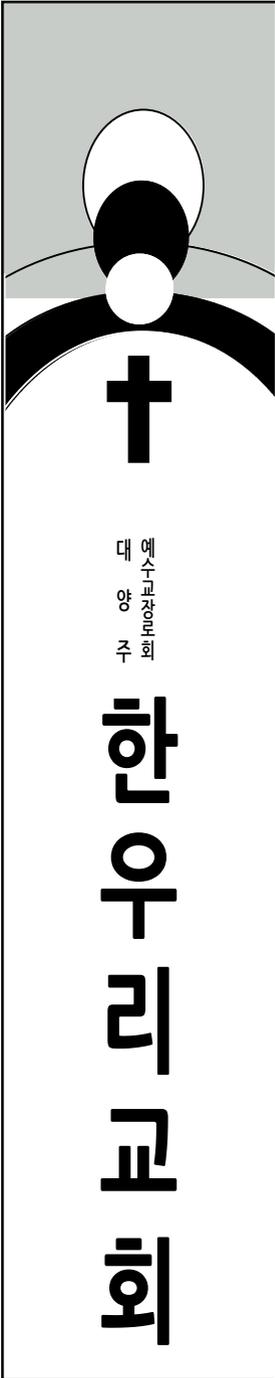
9월 15일(주일)  
정기 제직회

9월 29일(주일)  
일광절약제 시작  
교육위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 주일에배

#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김진영 2부/최영두 3부/이성민 4부/이효빈

- 예배부름 ..... 사 회 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다 함 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 봉헌 및 ..... 1부/ 민봉식 장로 2부/ 이경숙 권사 3부/ 최병한 장로 .....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 행 10:1-4 ..... 사 회 자
  - 찬 양 ..... 2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시온찬양대  
3부: 주만 바라볼지라 .....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 결말포함 ..... 안현수 목사
  - 찬 양 ..... 하나님의 열심 ..... 다 함 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 축 도 ..... 설 교 자
  -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 다 함 께
  - 봉헌 및 ..... 형 지원  
대표기도
  - 찬 양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 고후 1:1-11 [역설의 복음1] ..... 김진영 목사  
고난이라 쓰고 위로라 읽는다
  - 축 도 ..... 설 교 자
- 다음주 기도: 1부/ 이성열 장로 2부/ 김영현 장로 3부/ 아규삼 권사 4부/ 조태영 청년

# 수요일예배

저녁 7시

차세대 신앙교육  
시리즈 2

말씀: 딤후 3:14-17

제목: 믿음의 부모로 살다

기도: 임상혁 집사 (다음 주 기도: 박경배 집사)

설교: 이성민 목사

#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교회알림

-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공연날짜: 11월 30일(토)  
(교회창립33주년기념 감사콘서트)  
연습시간: 주일 저녁시간  
자격: Intermediate이상, Grade 5이상  
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의: 이지은 집사 021 202 5656
- 주차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부예배전 09:20-10:00  
3부예배전 11:20--12:00  
문의:이정석 집사 021 868 075
-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9/10월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10)
- 교역자 동정: 남우택 담임목사  
총회교육원 포럼및 고신 총회로 출타  
합니다.(8.26-9.12)

## 수요예배 - 차세대 신앙교육 시리즈

성경적 가치관과 비전을 품은 차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주 제
08.28	신앙교육의 필요성(삿 2:6-10)
09.04	가정예배1(딤후 3:14-17)
09.11	가정예배 2
09.18	말씀교육
09.25	기도훈련
10.02	가치관/세계관
10.09	정체성
10.16	소통
10.23	사랑과 훈육
10.30	교회 공동체

##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청년부 미션팀 아웃리치: 9.13-15 네이피어
- 약속의 나라 성경학교: 9.27(금)-29(주일)
- 교육위원회: 9.29(주일) 오후 1:30 조이홀

## 한우리 수요베이직

8월 7일(수) ~ 9월 11일(수) 6주

7시	수요예배		
7:45	기도 베이직 (교회카페)	찬양 베이직 (비전홀)	전도 베이직 (조이홀)
	이요한목사	이성민목사	안현수목사
8:15	3, 4교구	5, 청년부	1, 2교구
	*교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전도부

- 전교인 거리전도: 오후 3시 타카푸나비치  
어린이 놀이터 옆에서 있습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9	01	로덴나무평양 / 예멘
	08	사역 훈련반
	15	천국나그네 / 제주한라

## 교우동경

- 소천  
강신예 권사(이진호 장로)께서 지난 28일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고 김인배 장로(김영주 권사)께서 지난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하나님의 열심

A Dm/A A A Dm/A A

5 A Dm/A A A Dm/A A/C# DM7 Dm/F

사 랑 하 는 내 말 - 아 너 의 작 음 도 - 내 - 겐 귀 하 다 - 너 와 함 께 -

10 A/E C#/F F#m7 Bm7 D/E D/F# E/G#

결 어 가 는 모든 시 간 이 - 내 게 - 힘 이 - 라

13 A Dm/A AM7 A Dm/A A/C# D Dm/F

사 랑 하 는 아 - 들 - 아 네 연 약 함 도 - 내 겐 큼 이 라 너 로 인 해 -

18 A/E C#/F F#m7 B/D# D/E

잃 어 버 린 나의 양 들 이 - 돌아 오 - 리 - 라 조금 느 린 듯 - 해도 -

22 D A/C# G#m7(b5) C#7 F#m7

- 기 다 려 주 - 겠 니 - 조금 더 단 듯 - 해도 - 믿 어 줄 수 있 - 니 니 가

26 B/D# Dm6 A/C# Cdim7 Bm7 D/E

가 는 - 그 길 - 절대 헛 되 지 않 - 으 니 - 나와 - 함 께 - 가 자 앞 이 보 이지 - 않 아 -

30 DM7 A/C# G#m7(b5) C#7 3 F#m7

- 도 나 아 가 주 - 겠 니 - 이해 되 지 않 - 아 도 - 살 아 - 내 주 겠 니 - 너 의

34 DM7 E/D B/C# C#7/F 3 F#m7 Bm7 D/E

눈 물 - 의 기 도 잊 지 않 고 있 으 니 - 나의 열 심 으 - 로 이 루 리 라 -

# 목장소식

##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계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다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6 드레스덴	여승재	0211030655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소망	7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무지개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10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사랑	12 아베스	김인배	21759380	임마누엘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15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4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다윗	17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약속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19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7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21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빛	22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믿음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가나	이광일	212179303		62 LA	정두련	211365151
	25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26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4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7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5 산토	조기동	2102370987
	28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6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우리	29 엘림	이명준	272970117	67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과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8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9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70 아버가일	안경욱	2102913234	
	33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1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참빛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성결	72 웰링턴	이중훈	21781999
	35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73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섬나 호치민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7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8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6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교구	초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결말 포함 (행 10:1-4)

1. 이번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p><b>말레이시아</b></p>	<p><b>“울지 않은 길을 걷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b>  <b>‘이슬람개발부’ 역할 확대...</b>                  소수 종교 차별 예상</p>
<p>말레이시아 총리가 이슬람개발부(JAKIM)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샤리아법을 준수하지 않는 소수종교의 차별이 예상된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션(ICC)에 따르면, 다독 세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슬람개발부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람개발부는 이전까지는 설교, 교육, 구관 낭송 대화와 같은 종교적인 활동에 집중했지만, 국가의 주요 정책 및 예산에서는 그 역할이 크지 않았다.</p> <p>‘마다니 정부’(말레이시아의 현 정부를 지칭)는 모든 정부 부처에 이슬람개발부 담당관을 배치하여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슬람개발부 담당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향후 이슬람 샤리아를 준수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거부될 예정이며, 이는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의 약 65%는 무슬림이며, 19%는 불교 신자다. 기독교인은 인구의 10% 미만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p>	
<p><b>한국</b></p>	<p><b>“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b>  <b>무종교인 10명 중 4명 ‘개신교 이탈’...</b>                  교회 빨간불</p>
<p>무종교인 10명 중 절반가량은 과거 종교가 있었으며, 이중 ‘개신교인’이었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신교 신자의 이탈률은 가톨릭과 불교를 제치고 1위로 나타나 한국교회의 대응이 요청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지용근)는 지난달 30일 ‘한국인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리포트 넘버즈 250호를 발행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p> <p>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 10명 중 4명은 과거 종교를 믿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과거 종교가 ‘개신교’라고 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다. 가톨릭(33%)과 불교(17%)가 뒤를 이었다. 향후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무종교인은 19%에 그쳐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이들이 ‘향후 믿고 싶은 종교’로는 ‘불교’가 42%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은 33%였다. 이 가운데 ‘개신교’는 3개 종교 중 가장 낮은 22%로 제일 낮았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b>기 도 문</b></p> <p><b>사랑하는 하나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말레이시아]</b> 나라를 이슬람화 하려는 말레이시아를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li> <li>• <b>[한국]</b> 한국의 영혼들을 깨우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li> <li>• <b>[교우를 위해]</b>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독교의 가치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li> </ul>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